

‘따로 또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보건

한국웨스토 | 신동복 보건관리자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사진 강권선

이달의 한 마디

“보건관리자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

보건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관련 지식, 현장에 대한 관심, 성실함 등 다양한 요건이 있겠지만,
 그중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소통’이다. 방대한 현장과 많은 인원을
 보건관리자 홀로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다.
 그렇기에 동료들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이며,
 그 과정에서 소통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신동복 보건관리자는 현장의 모두에게 귀를 기울이며
 현장의 안전을 다 함께 만들어나간다.

ESTO

●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사후 대처

한국웨스트는 글로벌 공장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현재 70개 이상의 대리점과 애플리케이션 센터, 글로벌 R&D 센터, 생산물류센터, 고객 지원 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신동복 보건관리자가 근무하는 곳은 인천 청라에 있는 생산물류센터다. 신동복 보건관리자는 이곳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110명의 노동자의 보건과 안전, 그리고 센터의 환경과 시설관리를 담당한다.

한국웨스트 신동복 보건관리자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문구를 매일같이 가슴에 새긴다. ‘예방’, ‘무사고’ 등의 단어는 모든 회사의 목표이지만, 현실에는 너무 많은 변수

가 존재하기에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며, 이로 인해 정작 사고 후의 대비는 미흡해진다는 것이다.

“많은 보건·안전관리자는 사고가 나면 왜 사전에 막지를 못했는지 질타받기 쉽습니다. 언론의 보도도 예방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될 때가 많고요. 물론 예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해서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보건관리자가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 ‘감사하다’ 한마디, 일터를 지키는 힘

보건관리자는 매분 매초 긴장을 놓기 힘들다. 언제 어디서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동복 보건관리자는 매년 작성하는 ‘연간안전보건계획서’ 덕분에 이 과도한 긴장감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안전·보건 업무가 망라된 계획서를 늘 책상에 붙여 두고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놓친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놓친 업무가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일정을 재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가 입사 후 보건관리 계획을 세우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근골격계질환’이었다. 생산물류센터의 업무 특성상 중량물을 들거나 허리, 어깨 등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신동복 보건관리자는 대

한산업보건협회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 개선 및 보호구 지급이라는 개선 대책을 전달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개선이 가능한 공정은 노동자의 신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능성 깔창 ▲허리 보호대 ▲진동방지 장갑 등 각 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도 지급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신체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처럼 1년 치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데에 긴장감도 크지만, 노동자들의 감사 인사 한마디면 그 중압감은 말끔히 해소된다.

“개별 보호구를 지급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마쳤을 때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씀해 주시면 그만큼 보람찬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업무를 했을 뿐인데,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듣기 어려운 말을 들으면 참 뿌듯해요. 이 말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열심히 지켜나가겠습니다.”

● ● ‘소통’이 만들어낸 현장의 나비효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이는 분명 보건관리자다. 그러나 넓은 현장, 수많은 노동자를 1명 또는 소수의 보건관리자가 모두 신경 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법적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를 사실상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신동복 보건관리자가 노동자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이는 이유다.

“보건관리의 중점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노동자와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현장의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도 없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만큼 그 공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죠. 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입니다.”



노동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신동복 보건관리자는 현장에 얼굴을 자주 비추고, 노동자들에게 인사도 먼저 건넸다. 효과는 6개월로 충분했다. 노동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혼자라면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내용이였다. 해당 의견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QCD(Quality·Cost·Delivery) 미팅을 통해 사내에 공유됐다. 신동복 보건관리자가 일어난 아주 작은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은 사업장 전체에 퍼져 모두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다.

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의견을 경청해 그 의견을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는 신동복 보건관리자. 그렇게 한국웨스트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맞는다. 🍃